

고등학생의 라면소비 실태조사
—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

현 영 희* · 김 명 희 · 장 명 숙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Consumption Pattern of Ramyon by High School Students
— Kangwondo Area —

Young Hee Hyun*, Myung Hee Kim and Myung Sook Jang

Dept. of Food and Nutrition,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Consumption pattern of Ramyon by high school students at age of 16~20 years in Kangwondo area was surveyed by questionnaire.

About 74% among 754 students consumed Ramyon more than once per week. Most consumers eat Ramyon because of convenience for meal substitution. They consumed Ramyon at between meals and lunch at home. The advertisement had a strong effect on the selection of Ramyon.

Consumers considered that taste of soup and texture of noodle are both important quality factor of Ramyon. In terms of the texture of cooked noodle, the most desirable was chewy and hard texture. The most undesirable was swollen and mushy texture. The most desirabel and undesiralbe taste of soup were spicy and greasy taste, respectively.

At present,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nsumption pattern between sex were observed in most cases.

I. 서 론

청소년기는 성인으로 성장을 위한 과도기로서 제2의 급성장기이며 2차성징의 발현과 함께 모성기능이 갖추어지고 자아개념이 확립되는 시기로서 영양소 요구량이

증가한다¹⁻³⁾. 그러나 과중한 학교생활과 진학에 따른 시험준비등으로 심리적 부담이 늘어나고 등하교시의 교통문제와 경제적인 여건 및 영양교육의 미비에 따른 영양부족이 나타나기 쉽다^{4,5)}고 한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외모와 체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로 인한 지나친 감식은 빈혈, 성장저하, 신경성 소화불량, 심리적 장애,

먹는 것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6,7)}고 한다.

한편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서 식품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각종 가공식품과 즉석편의식품이 다양하게 개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면의 경우도 종류가 다양해지고 소비량이 점차 증가되어 1987년에는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이 10kg에 육박한다⁸⁾고 보고되어 있다. 이들 인스턴트식품과 식사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식사의 질이 양호한 쪽이 인스턴트식품의 이용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간식의 형태로 이용하기때문이라는 보고⁹⁾와 성인여자의 경우는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주식으로 라면을 섭취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보고¹⁰⁾가 있다. 그러나 이둘이외에 라면의 소비와 품질요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하여 장들¹¹⁾에 의한 강원도지역에 거주하는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김¹²⁾에 의한 서울지역의 라면소비 실태 조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확고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식품선택에 대한 태도가 확립되는 고등학생¹³⁾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라면의 소비실태나 품질에 대한 기호도를 평가하여 청소년기 식생활 관리와 식생활개선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6~20세의 고등학생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총 8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한 다음 모든 문항에 답한 754부를 자료로 하였다. 754명에 대한 남·녀비율은 남학생이 354명(46.9%)이고 여학생이 400명(53.1%)이었다.

Table 1. Frequency of Ramyon consumption

	Male		Female		Total	
	n	%	n	%	n	%
Almost none	7	2.0	16	4.0	23	3.1
1-2 times per month	61	17.2	112	28.0	173	22.9
1-2 times per week	158	44.6	202	50.5	360	47.8
3-4 times per week	90	25.4	61	15.3	151	20.0
5-6 times per week	38	10.3	9	2.2	47	6.2
Total	354	100.0	400	100.0	754	100.0

R = 0.8935 (P < 0.05)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연구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설문지의 구성은 라면의 소비실태와 라면의 품질에 대한 기호도를 평가하기위한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과는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남, 녀상호관계는 상관계수를 구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또한 모든 자료처리는 SPSS-X 21 program을 이용하여 MV-20000 model 1 computer로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소비실태

1) 소비빈도

라면을 섭취하는 빈도에 대한 남·녀 비율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1주에 1회이상 라면을 섭취하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각각 80.8%, 68%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자주 라면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여학생이 라면을 이용하는 비율이 적은 것은 김들¹⁴⁾에 의한 서울지역 여고생의 조사에서 나타났 듯이 라면이 배부름을 주며 살이 찌는 음식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1주에 5회이상 라면을 섭취하는 경우도 남학생이 10.3%로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라면을 자주 먹지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남학생 19.2%와 여학생 32%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는 먹을 기회가 없어서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서 29.4%로 나타나 있으며 그다음이 기타의 이유로 27.9%를 차지하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도 먹을 기회가 없어서가 31.2%로 가장 높았으며 맛이 없어서와 기타의 이유에 의한 것이 각각 25.0%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김¹⁵⁾이 보고한 서울지역

Table 2. Frequency of reasons for not eating Ramyon

	Male		Female		Total	
	n	%	n	%	n	%
Poor taste	14	20.6	32	25.0	46	23.5
Dislike noodles	6	8.8	12	9.4	18	9.2
No chance to eat	20	29.4	40	31.2	60	30.6
Poor nutritional quality	9	13.3	12	9.4	21	10.7
Others	19	27.9	32	25.0	51	26.0
Total	68	100.0	128	100.0	196	100.0

r = 0.9413 (P < 0.05)

고등학생은 영양가가 나쁘기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다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하겠다.

2) 소비시기 및 장소

라면을 1주일에 1회이상 섭취하는 558명을 대상으로 라면을 먹는 시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는 간식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서 41.6%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은 점심식사로 32.9%, 저녁식사로 26.1%가 라면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는 점심식사와 저녁식사, 간식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각각 34.2%, 33.8%, 30.9%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여학생의 경우는 간식보다는 주식대용으로 라면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라면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남학생은 간식으로 라면을 먹고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김등¹⁵⁾이 일부 농촌 여고생을 대상으로 1일 섭취식품량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점심식사로 나타났는데 본 조사결과 여고생의 경우 라면을 점심식사로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鈴木¹⁶⁾

의 지적대로 청소년기 식생활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라면을 먹는 장소에 대하여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녀학생 모두 가정에서 먹는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각각 76.6%, 72.4%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라면섭취의 장소로 음식점을 이용하는 비율이 남학생 10.8%, 여학생 16.9%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장들¹¹⁾에 의한 동일지역 국민학생의 연구에서 라면을 먹는 장소가 주로 가정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가정에서 먹는 비율이 감소하고 음식점에서 먹는 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3) 제품별 기호도

라면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른 조사결과는 Table 5와 같다. 남, 녀학생 모두 구별없이 먹는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각각 62.6%, 50.0%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특정회사의 특정제품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¹²⁾에 의한 서울지역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동일한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로 먹게되는 라면의 형태에 대한 결과는

Table 3. Frequency on time for Ramyon consumption

	Male		Female		Total	
	n	%	n	%	n	%
Breakfast	4	1.4	3	1.1	7	1.2
Lunch	92	32.9	93	34.2	185	33.2
Supper	73	26.1	92	33.8	165	29.6
Between meals	117	41.6	84	30.9	201	36.0
Total	286	100.0	272	100.0	558	100.0

r = 0.8950

Table 4. Frequency on place for Ramyon consumption

	Male		Female		Total	
	n	%	n	%	n	%
Home	219	76.6	197	72.4	416	74.6
School restaurant	24	8.4	19	7.0	43	7.7
Restaurant	31	10.8	46	16.9	77	13.8
Other	12	4.2	10	3.7	22	3.9
Total	286	100.0	272	100.0	558	100.0

r = 0.9941 (P < 0.01)

Table 5. Frequency for preference on Ramyon product

	Male		Female		Total	
	n	%	n	%	n	%
Specific product from a specific company	66	23.1	70	25.7	136	24.4
Any product from a specific company	41	14.3	66	24.3	107	19.2
Do not care	179	62.6	136	50.0	315	56.4
Total	286	100.0	272	100.0	558	100.0

r = 0.9928 (P < 0.1)

Table 6. Frequency for consumption of Ramyon by kind

	Male		Female		Total	
	n	%	n	%	n	%
100 won	106	37.1	106	39.0	212	38.0
200 won	63	22.0	56	20.6	119	21.3
Udon-type	41	14.3	32	11.8	73	13.1
Cup	11	3.8	11	4.0	22	3.9
Anything	65	22.8	67	24.6	132	23.7
Total	286	100.0	272	100.0	558	100.0

r = 0.9911 (P < 0.05)

Table 6에서 볼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100원짜리 라면을 먹는 비율이 37.1%이고 그다음으로 구별없이 먹거나 200원짜리 라면을 먹는 비율이 비슷하여 각각 22.8%, 22.0%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도 100원짜리 라면을 먹는 비율이 가장 높아서 39.0%를 나타냈으며 그다음은 구별없이 먹는 것으로 24.6%를 차지했다. 따라서 강원지역의 고등학생은 주로 100원짜리 라면류나 구별없이 라면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지역 고등학생은 100원짜리 라면류와 200원짜리 라면류를 주로 먹는 것으로 나타나¹² 강원도지역 학생들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라면을 먹는 이유

라면을 먹는 이유는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편리하기 때문에 먹는다고 답한 비율이 남학생 80.4%, 여학생 82.3%로 강동¹¹에 의한 동일지역 국민학생의 56~58%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은 맛이 좋기때문인 것으로 보여졌는데 이는 김¹²에 의한 서울지역 고등학생과 김¹⁷에 의한 주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어 라면은 편의성과 맛이 좋다는 이유로 선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라면선택의 동기

라면을 선택하는 동기는 Table 8에 나타난 것과 같이 남, 녀학생 모두 선전 또는 광고에 의하여 라면을 선택한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각각 51.0%, 65.1%를 보였다. 이는 김¹²에 의한 서울지역 고등학생에게서도 동일한 경향으로 나타나 광고가 청소년기 식습관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과장된 선전은 잘못된 식습관을 초래할 수 있다¹⁸는 지적과 같이 과다한 선전은 자제되어야 하겠

Table 7. Frequency of reason for eating Ramyon

	Male		Female		Total	
	n	%	n	%	n	%
Low price	8	2.8	1	0.4	9	1.6
Good taste	43	15.0	45	16.5	88	15.8
Convenience for meal	230	80.4	224	82.3	454	81.3
Nutritional value	5	1.8	2	0.8	7	1.3
Total	286	100.0	272	100.0	558	100.0

r = 0.9993 (P < 0.05)

다. 또한 포장이나 디자인은 라면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주지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품질인자에 대한 기호도

1) 품질요인

라면을 섭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인은 Table 9에 나타나있다. 남학생의 경우는 국물의 맛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서 44.8%를 차지했으며 둘다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도 42.3%로 나타나 있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는 둘다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51.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국물의 맛이 중요하다고 답해 37.9%를 보이고 있다. 김¹²에 의한 서울지역 고등학생의 경우도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국물의 맛과 면발의 조직감 둘다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국물의 맛이라고 답해 강원도지역 여학생과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2) 면발의 조직감

Table 10에서 알 수 있듯이 남학생의 경우는 굵은 면발과 보통면발을 선택한 비율이 각각 40.6%와 39.9%

Table 8. Frequency for motive influencing selection of Ramyon

	Male		Female		Total	
	n	%	n	%	n	%
Company	41	14.3	44	16.2	85	15.3
Advertisement	146	51.0	177	65.1	323	57.8
Design of package	32	11.2	12	4.4	44	7.9
New product	67	23.5	39	14.3	106	19.0
Total	286	100.0	272	100.0	558	100.0

r = 0.9727 (P < 0.05)

Table 9. Quality factor of Ramyon

	Male		Female		Total	
	n	%	n	%	n	%
Noodle texture	31	10.8	28	10.3	59	10.6
Taste of soup	128	44.8	103	37.9	231	41.4
Both	121	42.3	139	51.1	260	46.6
Do not know	6	2.1	2	0.7	8	1.4
Total	286	100.0	272	100.0	558	100.0

r = 0.9615 (P < 0.05)

Table 10. Thickness of noodle strand

	Male		Female		Total	
	n	%	n	%	n	%
Thick	116	40.6	67	24.2	183	32.8
Ordinary	114	39.9	131	48.2	245	43.9
Thin	32	11.2	49	18.0	81	14.5
Do not care	24	8.3	25	9.2	49	8.8
Total	286	100.0	272	100.0	5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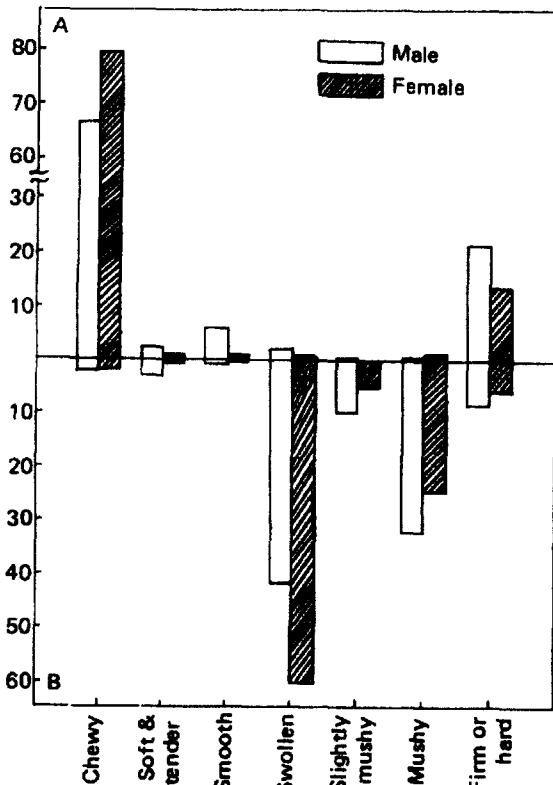


Fig. 1. Noodle texture of Ramyon. (A: favorable texture, B: undesirable texture)

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는 보통 면발이 좋다고 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아서 48.2%를 차지했으며 그다음에 굵은 면발로 24.6%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강원도 지역 고등학생의 경우는 보통 굵기의 라면과 굵은 면발을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면발의 조직감에 대한 것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는 쫄깃쫄깃한 조직감을 선호하는 비율이 67.1%로 나타난 것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는 79.4%로 나타나 여학생의 남학생보다 쫄깃한 조직감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꼬들꼬들한 것

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김¹²⁾에 의한 서울지역 고등학생의 경우와 장¹¹⁾에 의한 강원도지역 국민학생의 경우에도 일치하는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피하는 면발의 조직감에 대하여는 풀어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남학생이 41.9%, 여학생이 59.2%를 나타내 여학생의 경우가 풀어진 라면의 조직감을 싫어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서울지역의 여고생에서도 동일한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불호불한 것은 남학생이 32.5%, 여학생이 25.0%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강원도지역 고등학생의 경우 대체로 쫄깃한 조직감과 꼬들꼬들한 면발의 조직감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국물의 맛

라면의 국물의 맛에 대한 기호도는 Fig. 2에 나타나 있다. 좋아하는 국물의 맛은 남, 녀학생 모두 얼큰한 맛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아서 각각 74.1%, 69.5%를 차지했으며 그다음에 구수한 맛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지역 고등학생의 경우¹²⁾와 강원도지역 국민학생의 경우¹¹⁾에서도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나 라면의 국물에 있어서 얼큰하고 구수한 맛은 기호를 만족시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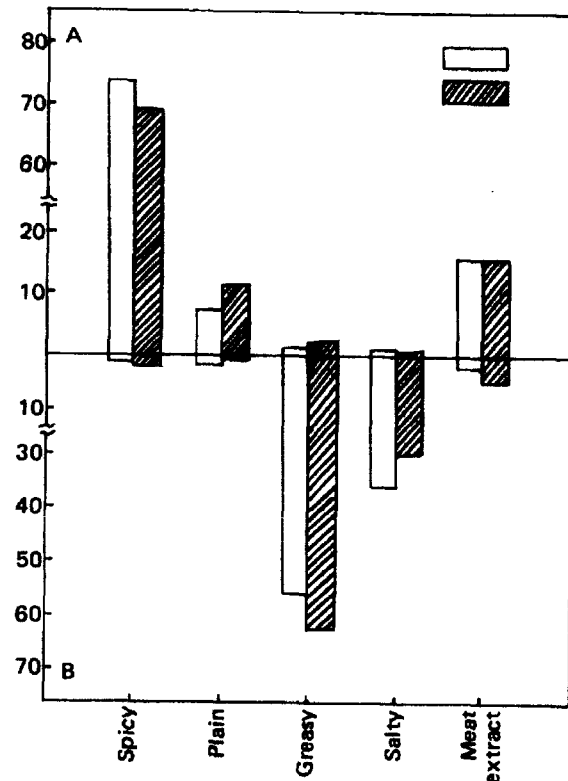


Fig. 2. Taste of soup for Ramyon. (A: favorable taste, B: undesirable taste)

중요한 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싫어하는 국물의 맛은 느끼한 맛으로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서 남학생이 56.6%, 여학생이 62.5%를 차지했고 짠맛이 싫다고 답한 비율도 남학생 36.7%, 여학생 29.8%로 나타났다. 이는 장들¹¹⁾에 의한 강원도지역 국민학생의 경우와 김¹²⁾에 의한 서울지역 고등학생의 경우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고등학생의 라면 이용률은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이 간식 또는 점심, 저녁식사대용으로 이용되므로 청소년기의 영양상태를 고려하여 품질이 개선되어야 하겠다. 또한 올바른 영양교육이 실시되어 식품선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IV. 요 약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6~20세의 고등학생 754명을 대상으로 라면의 소비실태와 품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총 754명중 74%에 해당하는 558명이 1주에 1회 이상 라면을 섭취하고 있었으며 주로 가정에서 간식 또는 점심식사, 저녁식사의 형태로 이용하고 있었다.
2. 라면을 먹는 주된 이유로는 편의상과 맛을 들 수 있으며 주로 선전이나 광고에 의지하여 제품이 선택되고 있었으며 100원짜리 라면류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3. 라면을 먹을때 가장 중요시하는 요인은 라면국물과 면발이었으며 대체로 보통굵기의 면발을 선호하고 있었다.
4. 면발의 조직감을 쫄깃쫄깃하고 꼬들꼬들한 것을 좋아했으며 풀어지고 흐물거리는 면발은 싫어했다. 국물의 맛은 얼큰한 맛을 가장 좋아했으며 느끼하고 짠맛은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라면을 먹는 시기의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1) McWilliams, M., Nutrition for the Growing Years, John Wiley & Sons Inc. p. 286, 1975.

- 2) 구재욱, 모수미, 이정원, 최혜미, 특수영양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p. 237, 1983.
- 3) Wilson, E.D., Fisher, K.H., and Garcia P.A., Principles of Nutrition, John Wiley & Sons Inc. p. 446, 1977.
- 4) 모수미, 한국여성의 식습관과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8집, 1969.
- 5) Everson, G.T., Bases for concern about teenagers diets, *J. Am Dietet A.*, 36(1):17, 1961.
- 6) Macdonald, L.A. & Wearing, G.A., Factors affecting the dietary quality of adolescent girls, *J. Am. Dietet A.*, 82(3):260, 1983.
- 7) Storz, N.S. & Walter, H.G., Body weight body image and perception of fat diets in adolescent girls, *J. Nut. Education*, 15(1):15, 1983.
- 8) 한국통계월보, 경제기획원, 1988
- 9) 임국이, 김선효, 청소년기 식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8(3):225, 1985.
- 10) 이현옥, 한국인 성인여자의 식품기호와 식품섭취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4):49, 1984.
- 11) 장명숙, 황재희, 현영희, 국민학생의 라면소비 실태 조사 한국조리과학회지, 4(2):81, 1988.
- 12) Kim, Sung Kon, Reserc on noodle-making properties of U.S. weat, Dankook Uni. press, pp. 3-34, 1989.
- 13) Yetley, E.A. & Roderuck, C., Nutrition knowledge and health goals of spouses, *J. Am. Diet.*, 77(1):31, 1980.
- 14) 김용주, 손경희, 여고생의 체중조절 관심도에 따른 섭취식태도 및 식품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4):31, 1988.
- 15) 김정이, 정국례, 일부농촌지역 여고생의 영양실태 및 혈액상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8(1):5, 1985.
- 16) 鈴木邪子, 三谷璋子, 食物攝取と 東大式健康調査判定結果との 關聯性, 栄養と食糧 32(3):169, 1979.
- 17) 김예경, 주부들의 영양교육을 위한 사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5(2):55, 1987.
- 18) 문수재, 이기열, 기초영양학, 수학사, p. 31, 1983.
- 19) 이명숙, 안남순, 이해수, 서울시내 여학생의 도시락 실태조사 한국영양학회지, 4(4):9, 1971.
- 20) 김진희, 여고생의 영양섭취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요인,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79.
- 21) 임국이, 김선효, 가정환경이 청소년기 식사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9(1):23, 1986.
- 22) 이현옥, 고등학생의 영양섭취 실태와 성장 발육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3.